

# 긴급진단! 위험수위, 자영제과점 인력난 “이러다간 공멸” 위기감… 근본적인 처방 필요

우리 사회에 근로 여건에 대한 다양하고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주 5일 근무제가 올 상반기 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김광웅)를 통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된 것은 근로문화에 대한 인식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본지는 자영제과점이 안고 있는 기술인들에 대한 처우 및 근로조건을 알아보고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는 기술인 고용난의 실태 및 대안을 짚어보았다.

■취재 / 오형석 ohs@mbakery.co.kr



“88년 당시 제과 기술인들의 처우는 구로공단 생산직 사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12년이 흐르는 동안 공단 직원들과 제과 기술인들의 근무환경은 너무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차치하고서라도 휴무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지역 한 자영제과점 공장장은 최근 베이커리 업계의 근로조건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 당시에는 구로공단 생산직 사원들도 밤 10시에서 11시까지 근무했지만 지금은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과업계의 경우 한달에 보통 2번, 많은 곳이 4번 정도 쉽니다. 초임이 평균 60만원 정도 되지만 초임이 얼마나 하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10여년 전 제과업에 입문했던 기술인들과 지금의 기술인들은 직업에 대한 의식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 개성·여가 중시 ... 직업문화가 바뀌고 있다

기술인들이 배출되는 경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과학원의 사정을 살펴보면 지금의 제과기술인들의 직업관을 엿

볼 수 있다. 김상엽 제과학원 강남분원 김기환 팀장은 “과거에는 기술을 익히는 것만이 인생의 목표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제과기술인들의 평균 학력이 높아지면서 자기 시간을 얼마나 유익하고 자유롭게 가지느냐 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우선 조건일 정도로 직업문화가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업체나 양산업체가 졸업생들의 50% 이상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제과점의 근무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칫 자영제과점 업계 전체가 몇 년 안에 기술인 인력 수급난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안게 될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베이커리업계가 안고 있는 인력난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풀아왔던 구조적 문제들이 새로운 시대의 급격한 흐름을 타고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됐다.

## 젊은 기술인 불만 늘어 ... 근본 처방 시급

현재 제과업계가 안고 있는 인력수급의 불안정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첫째, 임금이 다른 분야 근로자들과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과학원 출신 기술인의 평균 초임은 뚜레쥬르나 파리바게뜨가 평균 100만원(시간 외 수당 포함)선인 반면 자영제과점의 경우는 평균 6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과정보 정찬웅 기술상무는 “실제로 학원 졸업생들을 설득해 보지만 우선은 초임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력 확보

보에 어려움을 느낀다”며 “프랜차이즈 업체의 기술적 한계, 즉 냉동생지를 다루면서 배울 수 있는 기술력과 일반 제과점의 다양한 기술습득 기회의 차이를 강조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의 개인적 성향이 이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다음 요인으로 열악한 근무 환경이다. 우선 근무시간과 휴무를 살펴보면 자영제과점의 경우 근무시간은 하절기 평균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동절기 오전 6시에서 오후 7~8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평균 근무 시간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무시간인 주당 44시간에 비추어보면 업계의 열악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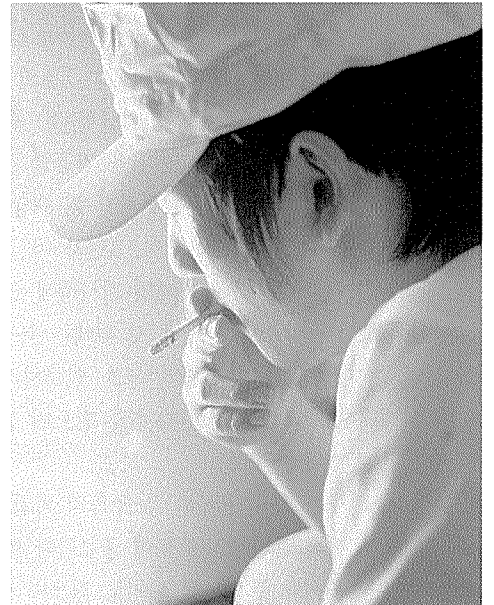
또한 월 평균 2~3일 휴무를 시행하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젊은 기술인들의 개인시간을 가지려는 성향과 대립된다. 특히 국경일을 포함한 공휴일 근무는 젊은 기술인들의 성향과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6개월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데코레이션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해서 동기들과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눠보지만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프랜차이즈 업체와 자영제과점을 선택하려면 대부분이 임금이나 복지제도가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고생이 좀 되더라도 자영제과점에서 기술을 다양하게 더 배우고 싶지만 분명한 결심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제과학원 수강생 김성욱(24)씨는 현재 학원 수강생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적되는 것이 상여금을 포함한 제반 복지제도가



▲ 제과학원의 수업장면. 수료 후 진로선택에 상당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직업의식은 과거와 달리 기술 자체보다는 '삶의 질'에 맞춰져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다. 현재 자영제과점 업계 전체의 복지 수준은 지극히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상여금이나 퇴직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회사의 복지제도가 단순히 임금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감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이는 기술자들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3월 15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민주노총에 정식 가입한 나폴레옹과자점 노동조합이 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추석보너스와 연말보너스를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 결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태는 자영제과점 업계에서는 초유의 일이고 업계의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회사 노조위원장 차성현(31)씨는 "떨린 상여금을 지급할 것,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것, 주부사원들에게 정규직 사원과 동등한 비율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 근무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각자 임금 수준에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것, 상여금을 1년차 이상 직원은 200%, 3년차 이상인 직원은 300%를 지급할 것 등 모두 다섯 가지를 회사측에 요구했지만 초임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 것 외에는 특별히 수용된 것은 없다"며 "본질적으로 임금 10만원을 인상하려고 노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좀 더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삶의 질을 높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노조측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전체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초임이 인상되는 등 회사측도 성의를 보이고 있으며 한꺼번에 모든 조

건이 바뀔 수는 없고 서로가 시간을 가지면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회사측의 솔직한 이해 필요 ...

#### 신뢰감 이룩해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주와 직원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경영자측은 기술인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원만한 해결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근로자들도 회사측에 무조건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원 비엔나 베이커리 김종천 사장은 "최근 기술인들을 구하지 못해 학원쪽으로 문의가 많고 그 외 제과인들의 모임을 통하거나 인맥을 통해 인력을 공급받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최근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영제과점 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상엽제과학원의 김기환 팀장은 "공장장급과 중간급 기술인 그리고 입문한 지 얼마 안된 초급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술인 시스템에서 지금의 보수체계나 복지 수준에 반발한 중간층 이하 기술인들의 이탈이 가속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향후 몇 년 안으로 현재 공장장급 기술인들 상당수가 개업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현재 기술인 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앞으로 냉동생지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이런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향후 더욱 늘어날 대형 할인점에서 가정용 냉동생지를 시판할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을 마련할 경우, 가정용 오븐 보급률의 증가와 맞물려 고객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제과 기술에 대한 고평가가 하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기술인들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가운데서 제과점 수가 계속 늘어나면 제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대중들의 빵식문화 전반이 변화하게 될 경우, 이는 곧 전체 자영제과점 업계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최근 기술인들의 인력난은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영제과점 업계 전체의 문제로 파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자영제과점 경영자측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김**